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3월 8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문화정책과	담 당 자	• 문화콘텐츠팀장 • 담 당 자	양상훈 ☎440-3991 곽성호 ☎440-3992
	관광마이스과	담 당 자	• 관광개발팀장 • 담 당 자	문윤구 ☎440-4061 홍경수 ☎440-4063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담 당 자	• 공원팀장 • 담 당 자	최희수 ☎453-7691 송은별 ☎453-769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보 도 시 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더 글로리’ 촬영지 관광자원화 추진**

- 인천영상위, 2022년 인천 킬러콘텐츠로 선정해 드라마 제작 지원 -  
 - 청라호수공원 내 재현 세트장 4월 중 일반에 공개 -

인천시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천 촬영지 ‘청라호수공원’을 관광자원화 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청, 인천영상위,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 글로리’ 인천 촬영지의 드라마 속 세트장을 일부 재현해 다음 달 중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더 글로리’는 인천시와 인천영상위가 지난해 ‘인천 배경 영상물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인천 킬러 콘텐츠’로 선정하고 촬영을 지원한 드라마로, 누적 시청시간 1억7,220만 시간·넷플릭스 글로벌 Top10 TV(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10일 파

트2 방영이 예정돼 있다.

인천 촬영지인 ‘청라호수공원’은 주인공들이 스토리를 풀어가는데 핵심적인 장소로 묘사됐으며 인천시는 ‘더 글로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청라호수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광자원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촬영세트장을 재현해 공개키로 했다.

박정남 인천시 문화정책과장은 “인천시가 촬영지원한 ‘더 글로리’가 흥행함에 따라 주요 촬영지인 청라호수공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협업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인천시는 영화와 드라마 등을 촬영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동시에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사진> 별첨

\* 별도 첨부드린 작품사진의 원본 중 ‘더 글로리’ 이미지 사용시에는 가공 및 수정 등 편집이 불가하며(비율조정도 불가) 반드시 출처(넷플릭스)를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